



스코틀랜드 독립 주민투표를 이틀 앞둔 16일(현지시간) 주도 에든버러의 한 아파트에 스코틀랜드기와 독립 찬성을 의미하는 글자 ‘Yes’가 걸려있다. /연합뉴스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주민 투표를 하루 앞둔 16일(현지시간) 분리 독립을 반대하는 단체인 ‘베터 투게더’(Better Together) 소속 회원이 에든버러 한 광장에서 ‘분리 독립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스코틀랜드 선택은?...오늘 독립투표 세계가 주목

마지막 여론조사 반 52:찬 48로 오차 범위 접전

찬성·반대만 기표...10대·여성유권자가 주요 변수

스코틀랜드 독립투표를 하루 앞두고(현지시간) 전 세계의 관심이 스코틀랜드로 쏠리고 있다. 이번 스코틀랜드 독립투표는 307년만의 스코틀랜드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투표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민투표 어떻게=스코틀랜드 주민만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스코틀랜드 거주민에게는 출생지에 관계없이 투표권이 주어지지만 스코틀랜드 출신 다른 지역 거주자는 투표권이 없다. 또한 스코틀랜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유럽연합 회원국과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국 출신 이주민도 투표에 참여 가능 하다. 투표는 스코틀랜드가 영국 연방에서 분리 독립해야 하는가라는 단일 문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만 기표하는 단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진행된 선거인 명부 등록 결과 이번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참여 의향을 밝힌 총 유권자 수는 428만 여명으로 이 가운데 79만 명은 이미 부재자 투표를 마친 상태다. 특히 이번 투표는 기존 18세에서 16세로 낮아져 청소년층의 표심 역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투표는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투표소

에서 투표 가능하며, 투표가 종료되면 집계 작업에 들어간다. 개표 결과는 지역별로 집계 작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발표된다. ◇막바지 여론조사 반대 근소하게 앞서=AFP 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ICM이 16일(현지시간)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독립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5%, 찬성한다는 응답이 41%로 각각 집계됐다. 찬성, 반대 의견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14%였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움(Opinium)이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함께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총 1156명 가운데 ‘독립 반대’가 49%로, ‘독립 찬성’(45%)을 4% 포인트 앞질렀다.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은 6%에 그쳤다. 특히 여성 응답자만 놓고 봤을 때 독립에 반대하는 응답은 58%로 이를 전인 14일 조사 때보다 2% 포인트 증가했다. 이 두 건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동층 응답자를 제외하고 다시 환산하면 독립 반대와 찬성 비율이 동일하게 52% 대 48%를 나타냈다. 즉 독립 반대 의견이 4% 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인데, 이는 이달 초 여론조사 결과 때(10% 포인트 차이)보다는 격차가 좁혀진 것이다.

AFP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독립 반대 여론의 우세를 보여주지만 결과치가 모두 오차범위에 근접해있어 18일 최종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찬반 진영, 부동층 공략 총력전= 찬성여론의 막판 상승세로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부동층의 표심이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다. 부동층 못지않게 막판 반심표 공략도 승부의 관건이다. 따라서 찬성운동 진영은 독립만이 스코틀랜드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독립 병영론에, 반대운동 진영은 되돌릴 수 없는 오만을 막기 위한 자치권 확대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영국 정부와 주요 정당들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에 조세권과 예산권까지 이양하는 획기적인 자치권 확대를 약속하며 반대표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독립에 대한 투표성향은 젊은 층일수록 찬성의견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투표율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투표를 둘러싼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 평소 60%대에 머물렀던 투표율이 80%를 넘나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스코틀랜드는 왜 독립하려 하나?

앵글로색슨족에 쫓겨난 켈트족 후에

북해유전 등 경제비중 높지만 복지소의

영국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의 왕국이 연합된 나라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민족적 뿌리 자체가 다르다. 잉글랜드는 앵글로색슨족, 스코틀랜드는 켈트족이 빠르다.

스코틀랜드 역사는 잉글랜드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항쟁의 역사로 이뤄졌다. 이들은 수백년간 전쟁을 이어왔다. 맬컴은 주연의 영화 ‘브레이브 하트’도 스코틀랜드 독립 전쟁 중 하나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1603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후손 없이 사망하자 인적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영국 국왕에 즉위하면서 두 나라는 연합국가 형태를 띠게 됐다. 이후 1702년 제임스 2세의 차녀가 여왕으로 즉위

하면서 스코틀랜드는 ‘그레이트 브리튼(Great Britain)’이라는 하나의 의회와 정부 아래 잉글랜드에 완전히 합병됐다. 스코틀랜드는 영국 연방 소속이지만 외교와 국방 외에 사법과 보건·교육 등 내정을 담당하는 자치의회가 따로 있다. 두 나라가 합쳐지긴 했지만 현재도 고령의 스코틀랜드인들은 여전히 영어가 아닌 토속어 게일어를 사용할 정도로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는 이질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독립을 추구해 왔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북해유전과 조선산업 등 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정자 복지혜택 등에서는 소외된 상태며 늘 불

만을 제기해왔다. 이런 가운데 독립을 추진하는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가 추진됐다. 결국 2012년 10월 스코틀랜드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배넉번 전투 700주년을 맞이하는 2014년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기로 합의했다. 307년 만에 분리독립의 꿈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분리독립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이끌어낼 경우 2016년 4월 정식 독립을 선포하고 새 헌법 제정에도 착수한다는 일정까지 제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엔총회 뉴욕서 개막

박대통령 24일 기조연설

北 리수용 외무상 15년만에 참가

제69차 유엔총회가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유엔본부에서 개막했다. ‘2015년 이후의 개발 의제 설정 및 이행’을 주제로 한 이번 총회는 샘 쿼테사 우간다 외교장관이 의장을 맡아 1년간 이어진다. 24일부터 30일까지는 190여개 회원국 대표들이 기조연설을 한다. 기조연설 순서는 관례에 따라 브라질이 첫 번째, 유엔본부가 소재한 미국이 두 번째며 국왕 또는 대통령 참가국, 총리 참가국, 외교장관 참가국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조연설 첫날인 24일 7번째 순서로 나선다. 박 대통령은 국제평화와 안보, 인권증진, 경제사회개발 등과 관련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밝히고 한반도 평화통일,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북한에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관급이 참여해 연설한다. 북한으로서는 연설자의 급(級)이 높아지긴 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아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연설은 27일 진행된다. 기조연설을 전후해 열리는 유엔기후정상회의(23일),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회의(24일),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24일) 등이 개최된다. 2020년 이후 신(新) 기후체제 도출을 위한 정치적 결정을 목표로 하는 기후정상회의는 3개 그룹으로 나뉘 회의를 한 데 이어 주제별 토론이 이어진다.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은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2년 전 출범했으며 이번에 고위급회의를 열어 세계 지도자들이 공동 노력의 의지를 다지게 된다. 안보리 정상회의는 9월 의장국인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주재로 열리며 시리아, 이라크 등의 이슬람 테러단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테러 전투원(FTF)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논의한다.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도 개최된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 2월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한 데 따라 북한의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등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각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최 공식 오찬은 24일 열린다. 이 자리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마주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오찬장의 좌석 배치가 급(級)에 따라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단순한 조우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공식행사 외에도 각국의 대표들은 양자 회담 등을 통해 활발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한국관광공사
오시아노 대중골프장

이제부터 반값에 골프친다

대중골프장의 저렴한 그린피를 한번더 저렴하게
골프 대중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오시아노 대중골프장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1064

예약 : 061)536-1000

선불 할인
카드란?

일정 금액을 카드에 충전 후, 골프장 내장 시, 프론트에 카드를 제시하시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시고 할인율에 따라 할인된 금액이 카드에서 차감 됩니다.

- 선불 카드 할인표 -

충전금액	200만원	400만원	900만원
그린피 할인율 주중/주말	기명1인 40%	기명1인 50%	무기명1팀(전원) 40%
공통혜택	· 캐디 선택제 · 골프장 내장시 카트비, 할인된 그린피가 충전 금액에서 차감 · 1일 18홀 적용		

- 요금 안내 -

구분	금액	비고
입장료	주중	60,000
	주말(공휴일)	90,000
팀당 카트비	60,000	캐디 선택제
팀당 캐디피	100,000	

Event

2부 내장객 9홀 추가시 주중3만원/주말4만5천원
(카트로 포함)

구매문의

061-536-3953